

2018학년도 6월 모평 '이기론' 지문 해설

국어는 흐른다, 송영준

보통 국어 영역이 어려운 이유를
지문과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을 어렵게 푼다.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은 슬프게도 나 때문입니다

30초면 풀 수 있는 것을
2분을 쓰게 만듭니다.

난이도가 1의 문제를
50, 100으로 올려 푼다.

이번 6평 해설을 통해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꿔 드릴게요.
쉽게 풀어 봅시다.

2018학년도 6평 이기론 지문입니다.

●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어 볼게요.**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문제를 먼저 읽을게요.

뭘 묻는지도 모른 채 글을 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풀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똑똑하게 풀어 봅시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하나씩 읽어 볼게요.

●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6번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요? 내용을 묻죠. 위 발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내용을 묻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 발문의 내용이 너무 당연해서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보며 16번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무엇을 묻죠? '성학'입니다. '성학은 ~이다.'는 성학의 내용이죠. 따라서 위 선택지를 풀기 위해서는 '성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조금 바꾸어 봅시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었더라도 잠깐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나는 선택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학'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학'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성학'의 설명이 나올 때 푸는 것이 좋겠죠.** 글을 다 읽고 풀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에서 '성학'의 설명에 어떤 내용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성학'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위 문제는 '성학'이 설명될 때 푸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어떤가요?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번은 '성학집요', ③은 '수교', ④는 '대전', ⑤는 '경국대전'에서 풀면 되겠죠. 글을 다 읽고 풀면 괜히 머리만 아픕니다.

* "어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학', '성학집요'와 같은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느낌만 가져가도 글을 읽을 때 보입니다.

그래도 기억하기 어렵다면 그냥 문단이 끝날 때마다 돌아오면 됩니다. 문단이 끝날 때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훨씬 쉽고 빠르게 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아래 설명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어지는 문제는 괜히 어렵게 푸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율곡'의 관점이 뭐죠? 대답할 수 없죠. 아직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글에서 '율곡'의 관점을 가지고 와야 위 문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쉽습니다. 뒤에 더 좋은 힌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기'입니다. 이 문제는 '율곡'의 관점 중에서 '이'와 '기'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꽤 구체적이죠.

정리하면 이 문제는 '이'와 '기'의 설명에서 돌아와 풀면 됩니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를 풀고 싶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 '수기치인'이죠. 이 문제는 ㉠이 설명될 때 돌아와 풀면 됩니다.

㉠이 양이 많더라도 다 설명된 후에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을 읽다가 굵직굵직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돌아와서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하면 그만이니깐요. 글을 다 읽고 풀면 쓸데없이 어려워집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보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발문을 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의 '율곡'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플라톤의 견해가 설명되어 있죠. 이 두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비교 문제는 처음에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도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기>의 '플라톤'의 설명을 먼저 읽어 버리면 글을 읽을 때 계속 생각이 나서 방해됩니다. 그래서 비교 문제는 처음에 잘 읽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지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보기>입니다. **선택지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버릴 수 없어요.** 선택지를 볼까요?

- ① 율곡의 '이'는 ...
- ② 율곡의 '이'는 ...
- ③ 율곡의 '성인'은 ...
- ④ 율곡의 '이'는 ...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언제 풀면 좋을까요? 율곡의 설명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면 되겠죠. **'이', '성인', '이상사회'를 기억하기 싫다면 단락마다 돌아오면 됩니다.**

후에 실력이 좋아지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라 가정할게요. 문단을 읽을 때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 풀이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쉽죠? 필요한 것을 찾아봅시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이죠. 이것이 설명될 때 풀도록 합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속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반드시 분석하고 들어가야 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19번이 생각 나나요? <보기>가 있다는 점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9번은 비교 문제였죠. <보기>에서 플라톤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플라톤과 지문의 소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읽지 않았죠. <보기> 때문에 헛갈리니까요.

그런데 21번은 비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보기>를 읽어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20번 보기>

속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속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속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속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글이 긴 것과 어려운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 <보기>는 길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읽어 볼게요.

속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속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회양부사 갑이 행차하는데 을이 무례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쳐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속종과 대신의 입장이 다르죠. 이해를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단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죠.

이에 속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글을 능동적으로 읽읍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규정 목록을 주었죠. **숙종과 대신들이 어떤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따져야 합니다.**

숙종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죠. 숙종의 말을 빌리면 경국대전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래의 항목들 중 (가), (다)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고 대명률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 대신들은 형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이 아니라고 하죠. 이것은 (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인 것은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글을 읽다가 이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 지체 없이 돌아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 글을 읽으며 이러한 문제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봅시다.

<1문단>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을 읽는 능력**입니다. 한 문장을 읽지 못하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을 이해할 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한 문장 읽기의 기본은 문장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 문장은 유학의 정의입니다. 이때 ‘정의’라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글을 읽지 않은 것과 같아요. 글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구조나 전개방식을 찾으려고 읽는 게 아니죠.

문장을 그대로 두면 내용 이해가 안 됩니다. **자릅시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유학은 // 유학에 대한 설명이구나.

㊸수기치인을 통해 //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 성인이 되는 구나. 수기치인은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 성인과 관련되어 성학이란 이름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첫 문장은 반드시 위와 같이 잘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계속 읽지 말고 잘라야죠. ‘수기’의 설명이 끝났으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수기’가 ‘사물을 탐구하고’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 ‘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기’가 왜 나왔죠? ‘수기치인’에서 나온 것이죠.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에서 ‘치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기치인’이 뭐죠? 성인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기치인’은 ‘수기’와 ‘치인’으로 나뉩니다. 결국 **‘수기’든 ‘치인’이든 성인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될 수 있어요.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 문장은 쉽죠. 앞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수기치인’이 뭐라고요? ‘성인’이 되기 위해 통과하는 것이죠. 위 문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독해를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 (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독해는 연결입니다. 연결의 관점에서 위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유학의 이념’입니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은 앞 내용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읽지 못하면 앞 내용과 ‘율곡 이이’가 분리되게 됩니다.

1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 봅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어떤가요? 너무 쉽죠. 이것이 정확한 문제 풀이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뒤에서 풀면 기억의 측면에서나 시간의 측면에서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풀이 과정은 독해력과도 관련 없습니다. **독해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는 효율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게 풀 이유가 없어요.

㉠ 수기치인도 꽤 많은 내용이 설명되었으므로 ㉡을 다룬 18번 문제도 봅시다. 답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뜻입니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선택지가 한 번에 분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 내용이 다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기'의 정화는 아직 설명되지 않아 모르지만 '수기'와 '치인'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1문단에서 반복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뒤에서 '이'와 '기'가 설명되면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겠죠. 나머지 선택지는 아직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2문단을 봅시다.

<2문단>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이기론'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기론'을 그렇게 이해하면 1문단의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에서 수기와 치인은 1문단에서 설명된 내용으로 연결이 만들어지죠. 이때 그 바탕이 '이기론'인 것입니다. **이기론은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입니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이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여기도 문장 끝까지 계속 읽으면 안 되겠죠. '이'의 설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정

확히 이해하려면 문장을 잘라야 합니다.

**'이'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해야죠. 나누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는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 이와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 '이'가 법칙이자 원리인 것에 반해 '기'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여기서도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 공통이지만 성질이 다르죠. '그 성질'은 앞 문장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이'와 '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울곡은 이처럼 // 앞 내용을 받습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니까요.
분리됨이 없이 // 하지만 둘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하죠.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한다.**

이기지묘가 뭐라고요? '이'와 '기'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더불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해가 되죠? 문장을 잘라야 생각할 수 있는데 자르지를 않으니까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문장을 자르는 것, 이것이 한 문장 읽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보량이 상당하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에 가깝겠죠. 이때 '기'와 '이'가 더불어 존재합니다.

㉡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기'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인가요? 아니죠. '기'가 아니라 '이'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접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와 '기'의 설명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설명을 읽고 돌아와 문제를 푼 것뿐이죠. 이 문제를 굳이 글을 다 읽고 풀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에서 '이'와 '기'를 가져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글을 다 읽고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또한 '이'는 19번 문제에서도 보였죠. 선택지에서요.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보기>를 읽으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구분한다.

플라톤이 현실 세계와 이상세계를 구분했어요. 글을 어느 정도 읽고 <보기>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데아는 //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지문과의 연결이 보이죠? '이데아'는 이상세계에 존재하는 것인데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앞서 2문단에서 본 것과 연결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내용은 '이'와 다르죠. '이'는 '기'와 더불어 실재한다고 했습니다.

<보기>의 뒷내용은 쉽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답은 ①입니다.

① 율곡의 '이'는 //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정확하죠. **답이 나왔습니다.** 실전에서는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불안하면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점검하면 됩니다.

19.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바탕이 되는 '이기론'이기 때문에 19번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준다.

이기지묘가 뭐라고 했죠? '이'와 '기'의 관계죠. 틀린 것이 쉽게 보입니다.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선택지죠. 왜죠? '수기'와 '치인'을 합한 '수기치인'이 뭔가요?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것이죠. 1문단의 내용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이 문제도 여기서 접습니다.

● **어떤가요? 벌써 세 문제가 끝났어요. 이것이 정확한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3문단>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통기국'이 뭐죠?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이죠. '수양론'은 뭔가요? 앞 문단에서 설명되었죠. '수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통기국은 수기를 위한 것, 즉 자신을 닦는 일을 말하겠죠.**

이것은 만물이

//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쉽죠? 앞서 이와 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주어는 만물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 앞 내용의 중복입니다.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 기질에 이런 두 가지를 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
// 안긴 문장으로 기질 변화론이 설명됩니다.
으로 이어진다.

이통기국론을 기질 변화론으로 연결하네요. 문장이 길지만 쉽습니다. '기질 변화론'이란 표현 자체에서도 보이죠. '기질'을 변화시켜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공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거경이 뭔지, 공리가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 가 중요해요. "거경이 뭘까요?"라고 물으면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 문장과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이해되지요?

결국 일반인이 거경, 공리, 역행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안긴문장에 주의하세요. 수양론은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세론'은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죠. 경세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적 폐단을 제거한다.'고요.

여기서는 돌아갈 문제가 안 보이네요.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4문단>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우선 만언봉사는 법제 개혁론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다음 문장에서 만언봉사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때 법제 개혁론으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선조는 //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주어를 분명히 합시다. ‘선조’입니다. 선조가 ‘이’와 ‘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죠. 율곡이 올린 답변은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율곡은 //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곡은 선조가 물은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에 대해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왕도나 오륜은 ‘이’이고 법제는 ‘기’가 될 것입니다. 법제를 개혁해서 이를 구현한다는 것은 앞 문단의 ‘수양론’과 무척 닮았습니다. ‘수양론’에서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여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시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인 법제를 개혁해서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율곡의 법제 개혁론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돌아와 확인을 해야 합니다.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쉽게 이해되죠. 단 정확하게 분석합시다. 경세론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맞죠.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경세론은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법제 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선조가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나요? 아니죠. 자신이 생각한 ‘이’와 ‘기’를 바탕으로 의견을 물었을 뿐입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다음 문단을 보세요.

<5문단>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수교가 뭐죠? “법전이요.”라고 대답하면 큰일납니다. ‘의’의 해석은 교재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주의합시다.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이 ‘수교’죠.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 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내용이 쉽죠~ 수교는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된 부분에 주의 하면서 읽어야 내용이 정확히 연결됩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㉓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㉔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남은 선택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㉔번이 됩니다. 16번이 끝났습니다. 21번 한 문제가 남았네요.

<6문단>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대전입니다. ‘이 과정’이란 앞 문단의 대전까지의 과정을 말하죠. 문단 간 흐름이 드러납니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내용이 쉽습니다. 《경국대전》이 충분한 분량으로 설명되고 있죠. 《경국대전》이 나온 21번을 풀 준비를 합니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조종성헌'의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21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21번 보기>

이에 속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갓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21번에서 속종은 '경국 대전을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로 사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①번이죠.

① 속종은 갓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속종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 정리하며

기억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을 천천히 푹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을 먼저 읽는 이유는
단지 시험지에서 글이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글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문제는 소홀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은 다른데도 말이에요.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시간 부족, 확신 없는 풀이는 모두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쌓아 올린 독해력을
너무 무의미하게 써버리고 있는 것이죠.

6평은 수능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험입니다.

내 공부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